

창간 10주년 기념 특집

視覺文化研究를 위한 試圖
日本美術史研究와 그 隣接領域

Gest editor

稻賀 繁美

國際日本文化研究center 總合研究大學院大學 教授

서문

편집위원 이나가 시게미
國際日本文化研究center 総合研究大學院大學 教授

일본미술 연구를 한마디로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본미술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연구되고 있는 미술 연구를 말한다. 이 영역들은 모두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여 영위해 온 미술 연구에 관한 문제점을 무의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전자인 일본미술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연구는 결코 자기 완결성과 폐쇄된 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한국 측에서 고대 고구려나 백제 작가들이 제작했다고 보는 작품이 일본미술에서 걸작으로 여겨지는 작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령 중세 말기 茶道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일본미학의 전형으로 다루어 왔지만, 다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차 도구의 많은 양이 한국에서 전래되었다. 그리고 거꾸로 근대 미술사학이라는 짜임새가 설정된 이후에 한국미술사에서는 청자나 백자를 높게 평가하여 한국의 미의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유교 사회였던 한반도의 양반계층이 과연 도자기가 서화에 필적할 만한 심미적 중요성을 지녔다고 인정했는지 아닐지는 역사 사회학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와 아사카와(淺川) 형제들이 이룬 한국 자기류의 재평가는 현대 한국미술사의 평가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그 攻罪를 묻고 學文史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것 또한 불가결한 작업일 것이다.

일본미술 연구를 조감하려 하면 주로 일본미술 (및 거기에 암묵적으로 이해되어 있는 허구인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업적에 주목하기 때문에, 한편에서 잊혀 버린 영역도 있다. 이것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미술사 연구 중 일본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의 방대한 축적일 것이다. 불교미술에 관해서는 전문 학회가 존재하기에 그 쪽에 일임하겠다. 아무튼 문제가 되는 점은 일본 내 서양미술사 연구에 대한 성과의 많은 부분이 국외에서는 등한시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학회에서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균형한 상태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서양미술사연구』라는 수준 높은 전문 학술지가 편집되고 있어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전문지에 발표되는 많은 업적 중에는 유럽 학회에서 구미언어로 발표되어도 좋을 만한 논

문도 있다. 또한 이 학술지는 유럽 학회에서 연구된 최근의 연구동향도 충실하게 게재하고 있어 그 의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독해능력을 지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구미에서 출간된 전문 학술지를 직접 열람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향 소개에 귀중한 시간이나 많은 노력을 할애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의의를 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시각문화 연구를 둘러싼 제3의 문제를 지적해 두고자 한다. 말하자면 미술사학이라는 학문은 방법론이나 사료 조작의 수법에서 고도의 수련과 완성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 문제의식에서는 현대의 학술적인 모든 요청에 완전히 대응할 수 없다는 면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미술사학은 위정자나 체제 그리고 유복한 지배계층의 재산목록 작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19세기에 자립한 학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전문분야에 근원이나 입각점을 단지 부정만 하는 비평정신을 바라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인접분야의 문제의식을 동원하는 것도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특집호의 목적은 일본 국내의 시각문화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의 일부를 한국의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협의의 일본미술사 관련 업적과 미술사학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서는 『미술사논단』에서도 이미 연구되어 왔으며 장래에도 필요에 따라 거론될 것이다. 특집호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통상적인 학문 분야에서 대체로 누락되기 쉬운, 미술사라는 영역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유익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문제작들을 시각문화를 포함한 인접영역의 최신 성과와 함께 편집해 보았다. 즉, 미학과 문학, 그리고 비교문화론 및 표상문화론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의 논고 몇 편을 정선하여 편집하였다.

이에 대한 계획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종래의 학술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서 국제교류의 실상을 파헤친 연구에 우선권을 주었다. 실제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라는 과거로 인하여 근대 한·중·일 3국의 문화사의 밀접한 관계는 사실에 입각하여 역사적으로 검증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기피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중대한 블랙박스가 방치되고 있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로 대체로 작품 연구·작가 연구로 한정되어 왔던 종래의 미술사학이라는 원리(Discipline)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며 방법론적인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는 문제작들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미술 생산을 배후에서 지지하는 시장기구, 가치 판단을 둘러싼 사회학적인 고찰, 서양 근대의 제도로서 '미술'과 동아시아에 적용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회학적 알력과 갈등 등과 같이 종래의 미술사학에서 은폐되어 온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시했다. 세 번째는 더욱이 오늘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학문적인 검토대상으로서 충분하게 인지되기 어려웠던 시각문화현상, 특히 근대 이후의 문화현상을 다룬 선구적인 논문에 조명을 맞추었다. 예를 들면 강단 미술사학은 대중문화론에 대해서 대체로 둔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영화와 만화, 사진 그리고 상업미술과 광고미술은 오로지 디자인 양성 학교에서만 정규과목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부 내부에서는 지금도 정면으로 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또한 정치적인 의의를 가진 기념비와 건축 公共彫刻의 의미론도 미술사학의 영역에서 상세하게 연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누락된 부분은 각각의 인접한 전문영역에 묻어 두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토대 위로 올려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횡단하며 미술사학의 원리에 대한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고 싶었다. 오늘날 일본에 있는 미술계 대학을 살펴보면, 학문으로서 미술사학과 이에 대한 연구는 작가를 목표로 하는 디자이너 지망생과 예술가 혹은 장인에게 필요한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거의 무의미한 영역으로 비쳐진다. 또한 방대한 숫자의 전람회가 일본 각지에서 경쟁하듯 기획되면서도 여전히 그것들을 정확히 비평하는 토양은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처음부터 전람회 도록에 확고한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미술의 제반 상황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일본 행정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술관과 박물관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서 행정상의 편의에 의해 무리한 재편집과 인원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 현대미술의 육성과 조성의 방향성도 불투명해지고 미술교육, 시각문화교육의 본래 양상도 교육 현장을 무시한 현 행정개혁에 좌우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미술사 연구자는 제도로서 미술의 종언, 그리고 칸트가 『판단력비판』(1790)에서 제시한 근대적 미술 이념의 파탄을 내다보면서 장래의 전망을 제시하라고 요구받는 바이다

이번 특집호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면 편집 기획자로서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외국인 기획 편집자로 초청해 주신 홍선표 교수와 귀중한 논문을 기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편집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 준 이토 나오코(伊藤奈保子) 박사, 이미림 박사, 이나가 마리(稲賀真理)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번 특집호는 “描寫와 記述：近代 視覺世界の 形態學과 市場의 遷移—方法論的 反省 Depiction and Description: Morphology of Modern Visuality and Marketplace in Transition—Methodological Reflections”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狹義의 불교미술 연구와 근세 이전의 미술작품 연구는 통상적인 연구 서적에 일임하고, 여기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 범위를 미술과 관련된 시각문화까지 넓혀 종래의 미술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논문을 중심으로 편집해 보았다. 테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배열하였다.

처음 두 편은 작품 연구에서부터 문화배경까지의 전망을 제시한 의욕적인 논문들이다. 한 편은 해외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화가로 인정받고 있는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에 관한 논문으로, 종래에는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여겨져 온 호쿠사이의 작품들을 민속학적 도상으로 해독하고 있다. 또 다른 한 편은 근대 일본 및 동양 미술사 구축에 공헌한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과, 유희를 융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구로다 세이키(墨田清輝)의 교섭에 관한 참신한 가설을 실은 논문이다. 다음은 시점을 서구로 옮겨 마네와 졸라 그리고 이들 주변의 구미 모더니즘의 기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시장 쇄신과 상업적 전개와의 함수로서 해독한 두 편의 논문을 실었다. 세 번째 논점은 격동하는 동양과 서양이 교섭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형성을 일궈 낸 화가, 예를 들면 후지타 쓰구하루(藤田嗣治)나 핑쯔카이(豐子愷) 등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일본인 혈통을 지닌 미국인 이사무 노구치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 가한 충격을 총합적으로 해명한 내용이다. 이러한 논점의 저변에는 모더니즘의 초월적인 면이 공통으로 내재하고 있다. 네 번째 시점은 시선의 정치학에 초점을 두었다. 근대 일본회화의 아시아 인식에서부터 여성잡지에 감추어진 해독 기호(코드)와, 圖像에 내재해 있는 대중 조작의 잠재성과 시장의 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점에서는 상기의 모든 요소들을 바탕으로 미술사학의 자기 반성을 요구한 내용을 배열하였다. 한 편은 제1,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동서 가치관의 지양으로 인해 성립된 동양 미술사학의 형성과정을 아시로 사치오(矢代幸雄)를 중심으로 해부하고 있다. 다른 한 편은 이비 바르부르크 연

구의 제1인자가 분석한 이미지 형태학으로 구미의 최신 연구에서도 사장되어 있던 분야까지 메스를 가하고 있다.

상기한 논문 11편에 이어 한정된 수량이지만 최신 연구동향 5편을掲載하였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의 참가 기획을 담당한 미학자가 현상을 비판한 내용에서부터 만화 문화론에 대한 비판적 총론, 광고영상에 관한 최전선 연구의 경과 보고, 그리고 일본에서 개최한 아프리카 현대 미술전을 문화인류학과 교차시켜 이문화 교섭을 시도했던 연구자가 현재 일본 소재 미술관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내부 비판한 내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불충분하고 아직 미흡한 상태라는 점은 주지된 바이지만, 2002년 이후에 간행된 시각문화 연구와 관련 있는 몇몇 중요한 저작 중에서 편집 기한 내에 서평으로 발표된 저작을 몇 편 정선하였다. 공예와 미술이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동양의 특성과 서구에서 이식된 '미술' 제도 사이의 桎梏 및 근대 장식미술의 복원과 재평가, 18세기의 세계적인 시각문화의 쇠신이라는 문맥 속에서 도쿠가와(徳川) 후기에 사회로 침투한 蘭學을 재평가하는 작업,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황족 초상의 젠더 정치학과, 유럽과 아시아라는 이문화가 교류하는 중에 발생한 갈등에 대한 문화사적 반성, 이와 함께 만화와 사진 등 종래 혐의의 미술사에서 제외되어 온 신흥 주요분야에 대해 의욕을 보인 작품들을 최우수 서평을 통해서 엄선하여 소개하였다. 전람회에 대한 평은 지면상의 사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출판업계와 학회의 비평 여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이에 관한 문제는 연구동향에서 언급하였다.) 한 편만 게재하였다.

최신 연구서와 전람회 도록 가운데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을 선별하여 서평을 집약하고자 한 시도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정기적으로 쇠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별, 사용언어의 종류와 관계없이 고립되기 쉬운 학술정보의 교류도 필수적인 사업일 것이다. 영역이 무한정 넓기 때문에 기획을 담당한 본인의 개인적 역량의 한계도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로 당초 고찰 범위에 넣으려고 기획하였던 영역의 극히 일부분을 가볍게 살펴보는 데 그쳤다. 할애를 해야 할 서적을 빠트린 점

등에 대해서는 고명하신 식자 여러분의 비판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머리말에서도 이번 기획의 논문 선택 방침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동양 및 일본 미술사 연구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였으며, 방법론적인 검토에서 참고할 만한 서적과, 동양의 선두적 서구문화 연구에 역점을 두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영화와 같이 이미 전문 연구지가 존재하는 영역에도 지면을 할애하였다. 11편의 서평에서 소개한 내용은 현재 활약하고 있는 집필자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시도는 한·중·일 3국의 학회를 중단하며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며 구미지역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多言語로表記되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본 기획의 주안점에 맞추어 서평에 포함되어야 했지만, 편집이 마감된 후 출판되어 신지 못한 출판물이나 저서 그리고 전람회 도록 등을 순서에 관계없이 소개하고자 한다.

공예: 金子賢治, 『現代陶藝의 造形思考』(阿部出版, 2001, 550쪽); 樋田豊次郎, 『工藝에는 生活感情이 封印되어 있다』(中央公論美術出版社, 2003, 599쪽); 福永繁樹(篇), 『21世紀는 工藝가 재미있다』(求龍堂, 2003, 238쪽); 좀 거슬러 올라가지만 天野知香, 『裝飾藝術』(브릿케, 2001, 486쪽).

회화: 今橋理子, 『江戸 動物畫』(東京大學出版會, 2004, 371쪽).

近代 아시아의 表象: 西槿偉, 『中國 文人畫의 近代』(思文閣出版, 2005, 295쪽); 金惠信, 『韓國近代美術研究』(브릿케, 2005, 295쪽).

유럽에 대한 특수연구서: 宮下規久朗, 『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名古屋大學出版, 2004, 426쪽); 湯澤英彦, 『クリスチャン・ボルタンスキー』(水聲社, 2004, 328쪽); 鷲田清一, 『지향했던 記憶』(阪急커뮤니케이션, 2000, 205쪽).

表象: 萩野弘子, 『Black : 人種과 視線을 둘러싼 鬭爭』(毎日新聞社, 2002, 290쪽).

帝國主義: 竹澤尙一郎, 『表象의 植民地帝國』(世界思想社, 2001, 340쪽); 松田京子, 『帝國의 視線 : 博覽會와 異文化 表象』(吉川弘文館, 2003, 229쪽); 竹村民郎, 『大正文化 : 帝國의 유토피아』(三元社, 2004, 209쪽).

批評·思索: 石井洋二郎, 『美的 思索: 살아남은 時空으로의 여행』(新書刊行會, 2004, 269쪽); 巖谷國土, 『封印된 별』(平凡社, 2005, 368쪽).

寫眞: 近藤耕人·管啓次郎(篇), 『寫眞과의 對話』(國書刊行會, 2005, 258쪽).

展覽會 목록: 『제2차 세계대전 후 日本을 앞지른 異色の 前衛 勅使인 河原蒼風』(世田谷美術館, 2001, 325+159쪽); 『神阪雪華』(京都國立近代美術館, 2003); 『마티스展』(國立西洋美術館, 2004); 『琳派展』(東京國立近代美術館, 2004); 『瀧口修造 夢漂流物』(世田谷美術館, 2005); 倉石信乃, 柏木智雄, 新畑泰秀, 『失樂園: 風景表現의 近代, 1870-1945』(兵庫美術館, 大修館書店, 2004, 207쪽); 『世紀의 祭典, 萬國博覽會 美術』(東京國立博物館 外, 2005); 『Marcel Duchamp 과 20世紀 美術』(國立國際美術館·兵庫美術館, 2004-2005).

덧붙이자면 이번 기획에서는 구미지역의 저작물 중 일본어로 번역된 것, 구미지역의 미술관 기획에 의한 일본 순회 전시회 등은 제외하였다. 미술 관계 서적의 출판정보는 몇몇 고서점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람회 정보에 관해서는 연구동향에 실린 이마하시 에이코(今橋映子)의 저작물의 권말 부분을 참조하기 바라며, 현재로서 전람회 정보를 총망라한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마무리를 겸해서 한 가지를 반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술정보를 일본지역 외에서, 그리고 일본어 외의 언어로 발언하는 자세가 지금까지 전무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특집호를 기획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본 문화산업 및 학회의 현저한 내향적인 성격, 해외와의 정보 전달 체계에 대한 시각의 미발달 상태, 그리고 이를 방치한 채 아무런 의식 없이 지내 온 일본측 관계자의 불감증 등을 빼어 사무치게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속해 온 폐해를 하루아침에 타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폐단의 심각성을 실감하기 위한 미약한 시도로서 이번 특집호를 기획 편집했음을 게스트 에디터로서 밝히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序文

問題発見のための視覚文化研究を目指して

－日本における美術史研究とその隣接領域

Gest editor 稲賀繁美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総合研究大学院大学教授

日本の美術研究と一口で言った場合、そこにはおおきくふたつのまったく異なる領域が設定できる。ひとつは日本の美術を対象とする研究。もうひとつは日本で遂行されている美術研究一般。そのどちらにも、国民国家を単位として営まれてきた学術研究の問題点がなかば無意識の状態では孕まれている。

まず前者、日本の美術を対象とする学術研究というものは、けっして自己完結し、閉鎖された領域を作るものではない。日本美術の傑作とされる作例のなかには、韓国から見れば古代の高句麗や百済の仏師の手になるものと認識されている作品が、その重要な部分を占める。中世末期の茶の湯にしても、日本では日本美学の典型として扱われるが、そこ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器の多くは韓国からの舶来であった。そして逆に近代の美術史学という枠組みが設定されてからは、韓国美術史において、李朝青磁や白磁は高く評価され、韓国の美意識を代表するものと認知されてきた。だが儒教社会であった韓半島の両班階層にとって、はたして陶磁器に書画と並ぶだけの審美的重要性を認められたのか否かについては、歴史社会的な検討が必要となることだろう。柳宗悦や、浅川兄弟による韓国の焼き物の再評価は、現代の韓国美術史における価値基準にいかなる影響を与えたのか。その功罪を問うことも、学問史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うえでは、不可欠の作業だろう。

日本の美術研究を鳥瞰しようとする、対象としての日本美術(およびそこに暗黙のうちに含まれた虚構としての「日本」)を扱った業績にばかり注目があつまり、ともすれば忘れられてしまう領域がある。それが日本における美術史研究のうち、日本を直接の対象とはしない研究の膨大な蓄積だろう。仏教美術に関しては、専門の学会が存在するので、そちらに譲る。とりわけ問題なのは、日本における西洋美術史研究の成果の多くが、国外ではほぼ無視に等しい扱いを受けている一方で、国内の学会ではおおきな影響力を行使しているという不釣り合いである。幸い近年では『西洋美術研究』といった高度な専門誌が編集されるようにな

り、状況は大きく変わりつつある。だがそこに公表される多くの業績は、本来欧米の学会で欧米の言語により発表されてよい論文だろう。また欧米の学会での最新の研究動向の紹介も充実しており、その意義は疑いない。しかし欧米の専門誌を直接閲覧する環境と、読解能力とに恵まれた専門家にとってみれば、動向紹介に貴重な時間や多大な労力を割くことには、必ずしも積極的に意義を認めがたい面もありえよう。

さらに視覚文化研究をめぐる第三の問題を指摘しておこう。即ち美術史学という学問は、方法論や史料操作の手法においては、高度の洗練と完成度を見せているが。その問題意識において、必ずしも現代の学術的な要請のすべてに十分には対応できていない面が否定できまい。端的に言って美術史学は、為政者や体制そして裕福な支配階級の財産目録作りを出発点として十九世紀に自律した学問である。一般に、ある専門分野に自らの出自あるいは立脚点を否定するだけの批判精神を望むことはむづかしい。この制度的限界を乗り越えるためには、隣接諸分野の問題意識を動員するのも、決して無意識なことではあるまい。

本特集号では、日本における視覚文化の最新研究動向の一斑を韓国の研究者に提供することを意図している。狭義の日本美術史関係の業績や、美術史学の領域での注目べき成果については、『美術史論壇』でも既に、そして将来にわたり、必要に応じて取り上げられてゆくことだろう。本特集では、むしろそうした通常の学問的営みからは脱落しがちだが、美術史という領分を批判的に検討するうえで有益と思われる問題作を、視覚文化一般を含めた隣接領域の最新の成果も交えて、編集してみることとした。そのため、美学や文学、さらには比較文化論や表象文化論を専攻する研究者の論考を、何点か精選して取り込んだ。

そこには、大きく言って四つの目論みがある。まず第一には、従来の国民国家単位の学術研究の枠組みゆえに見落とされがちだった国際交流の実相に迫る考察に優先権を与えた。実際、近代における韓・中・日の文化史上の密接な関係は、

日本のアジア侵略という過去ゆえに、事実在即して歴史的に検証すること自体が政治的に忌避されてきたため、今日なお重大なブラック・ボックスが放置される結果となった。第二には、従来作品研究、作家研究に自己限定しがちだった美術史学というディシプリンにたいして反省を促し、方法論的な見直しを示唆するような問題作に焦点を当てた。美術生産を背後で支える市場の機構、価値判断を巡る社会学的な考察、西洋近代の制度としての「美術」とその東アジアへの適用がもたらした社会的な軋轢や葛藤。そうした、従来ともすれば美術史学が隠蔽してきた側面への問題意識を重視した。そして第三には今日なお東アジア文化圏においては十分に学問的な検討の対象とは認知されにくかった視覚文化現象、とりわけ近代以降の文化事象を扱った先駆的な論文に照明を当てた。例えば大衆文化論にたいしては講壇美術史学は鈍感な対応を示しがちだったし、映画や漫画、写真や商業美術や広告美術は、デザイナー養成学校でこそ正課として研究されたが、官学を中心とする文学部の内部では、今なお正面から論じられることは稀なままに取り残されている。また政治的に意義を担った記念碑や建策、公共彫刻の意味論も、必ずしも美術史学の領分ではきちんと論じられてはこなかった。こうした欠落部分は、隣接するそれぞれの専門領域に閉じ込めておくのではなく、共通の土俵に持ち込んで、徹底した検討を加えられるべき話題だろう。

最後に第四としては、これらすべての問題意識を横断して、美術史学なるディシプリンの自己反省を促す契機を大切にしたい。今日の日本の美術系大学を見る限り、学問としての美術史学とその研究は、実作者を目指すデザイナーの卵や、芸術家あるいは職人としての技法習得を目指す大多数の学生たちにとって、ほとんど無意味に等しい営みと映じている。また膨大な数の展覧会が日本各地で競って企画されていながら、それらをきちんと批評する土壌は未成熟であり、そもそも展覧会カタログそのものに、確固たる市民権が与えられていない、という不備が、日本の文化行政を特徴づけている。美術館・博物館の社会的責務や機能に関

しても、突き詰めた議論もないままに、行政の都合で理不尽な再編成や「リストラ」が進行している。そのなかで現代美術の育成・助成の方向性も不透明となり、美術教育、視覚文化教育の在り方も、現場を無視した行政改革に翻弄されている現状がある。制度としての「美術」の終焉　そしてカントの『判断力批判』(1790)が提示した近代的美術理念の破綻　を見越して、将来への　展望を開くことも、二十一世紀を迎えた美術史研究者には要求されているはずである。

本特集号が、そのための何らかの示唆を提供できるならば、編者として、これに過ぎる幸せはない。外国人来賓編者(guest editor from abroad)としてお招きくださった、洪善杓教授、また貴重なご寄稿を賜った各位に、この場を借りてあらためて厚く御札を申し上げる。「編集」にあたっては、伊藤奈保子、李美林両博士および稲賀真理の尽力を賜った。記して謝意を表します。

本特集号は、「描写と記述：近代視覚世界の形態学と市場の遷移 - 方法論的反省
Depiction and Description: Morphology of Modern Visuality and Marketplace in Transition
Methodological Reflections」と銘うつ。狭義の仏教美術研究や近世以前の美術作品研究は
通常の巻に譲り、ここでは近年の日本における研究成果を中心として、美術とそれを取り
巻く視覚文化を視野におさめ、従来の美術研究に対して方法論的な反省を迫る論文を
中心に一巻を編んでみた。話題は、緩やかに時代の流れに沿って配列した。最初の2編は、
作品研究から文化背景への展望を開く意欲作。一方は、海外で日本を代表する画家とみ
なされることが多い北斎の、従来意図不明とされてきた作品の民俗学的図像解読。他方
は、近代日本・東洋美術史の構築に貢献した岡倉天心と油彩画隆盛の要となった黒田清
輝との交渉にかんする斬新な仮説。続いて視点を西欧に転じて、マネやゾラとその周辺
に観られる欧米モダニズムの起点を市場の刷新や商業の展開との函数として読解する試
みを2編。さらには第3の論点として、藤田嗣治や豊子愷など、東洋と西洋との交渉のな
かに翻弄されつつ自己形成を遂げた画家の姿を浮き彫りにするとともに、日系アメリカ
人、イサム・ノグチが戦後日本にもたらした衝撃の総合的解明。そこにはモダニズムの
越境性が通底している。そして第4点として、視線の政治学。近代日本絵画のアジア認識
から女性雑誌に隠された解読格子（コード）へと、図像の孕む大衆操作の潜在性とそ
の市場との関係が精緻に分析される。最後にこれらを踏まえた第5の視点としては、美術史
学の自己反省が迫られる。一方では、两大戦間に東西の価値観の止揚として成立した東
洋美術史学の形成課程が矢代幸雄の場合を手がかりに解剖され、他方ではアビ・ワール
ブルク研究の第1人者によるイメージ形態学の解析が、欧米の最新研究でもなお手付かず
の闇に探りを入れる。

これら11本の論文に続いては、5本と数は限定されているが、最新の研究動向の報告
を掲載した。ヨコハマ・トリエンナーレに参画した美学者の現状批判から、マンガ文化
論への批判的総括、コマーシャル映像研究の最前線よりの経過報告、そして、アフリカ
現代美術展を日本で開催し、異文化交渉を文化人類学とも交差させた体験を持つ経験者
による、日本の美術館が置かれた困難な現状への内部批判をこめた問題点の指摘。

最後に、これも、不十分、不ぞろいは承知のうえで、2002年以降に刊行された視覚文化研究関係の何冊かの重要な著作に関して、編集期限までに書評が公表されたものから、何篇かを精選した。工藝と美術との不可分な東洋の特性と、西欧から移植された「美術」制度との桎梏や、近代における装飾美術の復権と再評価、18世紀の世界的な視覚文化刷新の文脈のなかで徳川後期の蘭学の社会浸透を再評価する作業、さらには近代国民国家形成過程における皇族の肖像のジェンダー政治学や、欧州とアジアとの異文化交流と葛藤への文明史的反省、とともに、マンガや写真など、従来の狭義の美術史から排除されてきた新興重要分野への意欲作を、最良の書評を通じて厳選紹介した。展覧会評は、紙面の都合というよりも、むしろ日本の出版界や学会で批評の場が限定されているため(この問題点には、研究動向でも触れた)1本掲載に留まった。

最新の研究書や展覧会カタログのうち、歴史に残るものを選別して書評を集約する試みは、事情が許すならば定期的に刷新されるに値する。また国別、使用言語別にとかく孤立しがちな学術情報の交流も不可欠な事業だろう。領域は無限に広く、篇者の個人的な力量の限界も否めない。当初視野に納めようと計画していた領域のごく一部を瞥見したにすぎない結果となっており、割愛せざるを得なかった書籍や、幾多の見落としに関しては、識者のご批判に待ちたい。冒頭にも本巻所収論文の選択方針について触れたが、これと同様に、通常の東洋および日本美術史研究書は、ここでは原則として除外し、方法論的な検討のうえで参考となる書籍や、東洋における第一線の西欧文化研究に力点を置いた。さらに映画のように、既に別の専門研究誌が存在する領域は割愛した。11本の書評で紹介したのは、活躍中の執筆者のほんの一角に過ぎない。同様の試みが、韓・中・日3国の学会を縦断してなされ、相互に裨益し、しかも欧米でも評価されるような多言語表記で、今後継続的な情報提供に資することを希望する。

なお、編集締め切りのため、本来なら本巻の主旨に照らし、書評に取り込むべきだが盛り込めなかった、その後出版の著書およびいくつかの展覧会カタログを、順不同で極めて不完全ながら、数冊補っておきたい。

- [工藝]: 金子賢治『現代陶芸の造形思考』(阿部出版 2001年、550頁)。樋田豊次郎『工藝には生活感情が封印されている』(中央公論美術出版 2003年、339頁)、福永繁樹(篇)『21世紀は工藝がおもしろい』(求龍堂、2003年236頁)。また時期は遡るが、天野知香『装飾／芸術』(ブリュッケ、2001年、486頁)。
- [絵画]: 今橋理子『江戸の動物画』(東京大学出版会、2004年、371頁)。
- [近代アジア表象]: 西槇偉『中国文人画の近代』(思文閣出版、2005年、381頁)、金恵信『韓国近代美術研究』(ブリュッケ、2005年、295頁)。
- [欧米モノグラフィー]: 宮下規久朗『カラヴァッジョ』(名古屋大学出版会、2004年、426頁)、湯沢英彦『クリスチャン・ボルタンスキー』(水声社、2004年、328頁)、鷺田清一『眼差しの記憶』(阪急)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2000年、205頁)。
- [表象]: 荻野弘子『ブラック:人種と視線をめぐる闘争』(毎日新聞社、2005年、290頁)。
- [帝国主義]: 竹沢尚一郎『表象の植民地帝国』(世界思想社、2001年、340頁)、松田京子『帝国の視線:博覧会と異文化表象』(吉川弘文館、2003年、229頁)、竹村民郎『大正文化:帝国のユートピア』(三元社、2004年、209頁)。
- [批評・思索]: 石井洋二郎『美の思索:生きられた時空への旅』(新書館、2004年、269頁)、巖谷國士『封印された星』(平凡社、2004年、368頁)。
- [写真]: 近藤耕人・管啓次郎(篇)『写真との対話』(国書刊行会、2005年、258頁)。
- [展覧会カタログ]: 『戦後日本を駆け抜けた異色の前衛 勅使河原蒼風』(世田谷美術館、2001年、325+159頁)、『神坂雪華』(京都国立近代美術館、2003年)、『マティス展』(国立西洋美術館、2004年)、『琳派展』(東京国立近代美術館、2004年)、『龍口修造 夢の漂流物』(世田谷美術館他、2005年)、倉石信乃、柏木智雄、新畑泰秀『失楽園:風景表現の近代1870-1945年』(横浜美術館、大修館書店、2004年、207頁)、『世紀の祭典 万国博覧会の美術』(東京国立博物館ほか、2005年)、『マルセル・デュシャンと20世紀美術』(国立国際美術館、横浜美術館、2004-5年)。

なおここでは、欧米の書物の日本語への翻訳、欧米の美術館企画の日本巡回展など

は除外している。美術関係の書籍の出版情報はいくつかの専門古書店のホームページで確認可能。展覧会情報に関しては、研究動向で取り上げた、今橋映子編著の巻末を参照されたいが、網羅的な媒体は存在しないのが現状であろう。

最後にまとめとして、一つの反省点を確認する。こうした学術情報を日本の外に日本語以外の言語によって発信する姿勢が皆無とってよい、日本の文化産業や学会の著しく内向きの性格。さらには海外との情報伝達網の眼に余る未発達ぶりと、それを放置して怪しまずにきた日本側関係者の不感症が、今回の特集号を編む場合にも、痛切に実感された。そうした状況のもたらす弊害を一朝一夕に乗り越えるのは、到底無理としても、その弊害の大きさを実感するためのささやかな試みとして、今回の特集号を編纂したことを、最後に付記して、ゲスト・エディターとしての言葉の結びとしたい。

研究論文

- 今橋理子 伝説の記号－葛飾北斎筆「西瓜図」と七夕
高階絵里加 黒田清輝の岡倉天心像－《智・感・情》の主題と成立をめぐって
桶賀繁美 モダニスト美学の起源と市場操作の昇華－エドゥアール・マネ売り立てにおける市場戦略
吉田典子 ショーウィンドーの中の女たち－ゾラとマネ、ティソ、ドガにおける近代商業の表象
林洋子 藤田嗣治の1910年代－パリ周縁というトポス
藤原貞朗 東洋美術史学の起源における歴史観・文化的価値観－分析方法をめぐる日本と欧米の競合について
西橋伸 豊子悦の西洋美術受容及びその中国伝統美術再発見と革新をめぐって
西原大輔 近代日本絵画のアジア表象
落合恵美子 日本の女性雑誌に見る女性の表象－ジェンダーとセクシュアリティの戦後体制
尾立元 一九五〇年代の前衛芸術における伝統論争－イサム・ノグチの影響を中心に
田中純 イメージの歴史分析、あるいは歴史のイメージ分析－アビ・ヴァールブルク「ムネモシュネ」におけるイメージの形態学

研究動向

- 室井尚 現代の知的状況と芸術
ジャクリヌ・ベルント 不釣り合いなペア－現代日本における「美術」と「マンガ」の言説的関連づけをめぐって
山田梨治 コマーシャル美術映像研究の現状
今橋映子 展覧会カタログの現状をめぐって
川口幸也 あらたな文化装置は可能か－日本の美術館の問題と可能性

書評

- 木下直之 生き続ける光琳 | 玉蟲敏子(著)
佐藤康宏 都市の中の繪：酒井抱一の繪事とその遺響 | 玉蟲敏子(著)
種村季弘 定信お見通し－寛政視覚改革の治世学 | タイモン・スクリーチ(著) | 高山宏(訳)
斎藤美奈子 皇后の肖像－昭憲皇太后の表象と女性の国民化 | 若桑みどり(著)
芳川泰久 クアトロ・ラガツィー－大正少年使節と世界帝国 | 若桑みどり(著)
桶賀繁美 アヴァンギャルド以降の工芸－「工芸的なもの」をもとめて | 北澤憲昭(著)
中条晋平 白土三平論 | 四方田犬彦(著)
山内昌之 <パリ写真>の世紀 | 今橋映子(著)
永澤峻 アビ・ヴァールブルク 記憶の迷宮 | 田中純(著)
谷川渥 死者たちの都市へ | 田中純(著)
酒井忠康 モランディとその時代 | 岡田温司(著)

展覧会評

- 梅原猛 没後二十五年 八木一夫[展] | 京都国立近代美術館(編)

Articles

- IMAHASHI Riko Hokusai's Watermelon as a Symbol of the Star Festival(Kikkoden) and The Romance of the Milky Way
- TAKASHINA Erika Kuroda Seiki's "Portrait" of Okakura Tenshin: New Light on the Inspiration and Theme on *Chi Kan Jo*
- INAGA Shigemi The Origin of Modernist Aesthetics as an Oblivion of Market Manipulation: The Case of Edouard Manet and the Marketing Strategy of his Auction
- YOSHIDA Noriko Women in the Show Window : Representations of Modern Commerce in Zola, Manet, Tissot and Degas
- HAYASHI(HIBINO) Yoko Fougita Tsuguharu at the End of 1910s: The Outskirts of Paris
- FUJIHARA Sadao Esthetic and Scientific Conflict between Japan and the Occident in the Historiography of the Far Eastern Art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 NISHIMAKI Isamu Feng Zikai(1898-1975)'s Reception of Western Arts, His Rediscovery and Reformation of Chinese Traditional Painting
- NISHIHARA Daisuke Representation of Asia in Modern Japanese Paintings
- OCHIAI Emiko Representations of Women in Japanese Women's Magazines: The Postwar System of Gender and Sexuality
- ADACHI Gen The "Controversies on Tradition" in the Avant-garde Art of the 1950s: With Primary Regard to the Influence of Isamu Noguchi
- TANAKA Jun Historical Analysis of Images, or Image Analysis of History: Morphology of Image in Aby Warburg's "Mnemosyne"

Topics from Recent Researches

- MUROI Hisashi The Contemporary Intellectual Environment and the Arts
- BERNDT Jaqueline An Unequal Pair: How Manga and Fine Art Are Discursively Interrelated in Contemporary Japan
- YAMADA Shoji Review of Television Commercial Art Studies
- IMAHASHI Eiko Art Catalogues in Japan Today: Exhibition Catalogues in the Age of Cross-Cultural and Cross-Genre Studies
- KAWAGUCHI Yukiya Is a New Cultural Apparatus Possible?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Museums in Japan

Books Reviews

- KINOSHITA Naoyuki *Korin's Living Tradition* by TAMAMUSHI Satoko
- SATO Yasuhiro *Paintings in Urban Milieu: Sakai Hoitsu and his Effects* by TAMAMUSHI Satoko
- TANEMURA Suehiro *The Shogun's Painted Culture: Fear and Creativity in the Japanese States 1760-1829* by Timon SCREECH, translated into Japanese by TAKAYAMA Hiroshi
- SAITO Minako *Portrait on an Empress: Representations of the Empress Shoken and the Nationalization of Women in Japan* by WAKAKUWA Midori
- YOSHIKAWA Yasuhisa *Quattro Ragazzi: The Tensho Christian Mission and the World Empire* by WAKAKUWA Midori
- INAGA Shigemi *Arts and Crafts after the Avant Garde Era* by KITAZAWA Nonaki
- CHUJO Shohei *A Study of Shirato Sanpei' and His Epic Manga* by YOMOTA Iruhiko
- YAMAUCHI Masayuki *Le siècle de la 'photographie parisienne'* par IMAHASHI Eiko
- NAGASAWA Takashi *Aby Warburg: das Labyrinth der Gedächtnisses* by TANAKA Jun
- TANIGAWA Atsushi *To the City of the Dead* by TANAKA Jun
- SAKAI Tadayasu *Giorgio Morandi e il suo tempo* by OKADA Atsushi

Exhibition Review

- UMEHARA Takeshi YAGI Kazuo Retrospective at the Kyoto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